



◇304회부터 6년동안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는 도현 스님.

600회 맞은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희망의 인연 만들기 13년

불교방송 최장수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 (매주 금요일 오전 9시5분~오전 10시)이 10일 6백회를 맞는다.

지난 91년 4월 5일 첫 걸음을 댄 이 프로그램은 방송개시 13년만에 6백회 방송의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프로듀서만도 최윤희 PD를 시작으로 지금의 문태준 PD까지 8명에 이른다. 진행도 정목 스님을 비롯해 덕신, 해성스님, 그리고 현재의 도현 스님까지 내로라 하는 인기 방송인 스님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해 곁으로 드러난 그늘진 곳이 아니라 더러도 부모의 이혼 등으로 편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실제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지원이 전무한 실정어서 앞으로 이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기획할 것"이라고 계획을 털어 놓았다.

304회때부터 6년동안 진행 해온 도현 스님(서울 상도동 정혜사 주지)은 "방송나간 다음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혜자들을 찾아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다"며 "우리 주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루빨리 무거운 업연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따뜻한 보시행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오는 10일 방송될 6백회 특집 '새로운 시작, 함께 여는 세상'에서는 지난 6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중 시각장애우들에게 '책상용 확대독서기'와 '간편형 확대 독서기'를 지급하며 청취자들을 위해 겨울철이던 옷과 이불, 쌀 등을 보자기에 쌓아 직접 방송국으로 찾아오는 열성 청취자 덕분에 후원품도 상당수 보시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92년과 98년 한국방송대상 2회 수상을 비롯해 93년에는 한국프로듀서상 진행자상, 2001년 '이달의 PD상' 등을 받기도 했다.

문태준 PD는 "사회의 세태가 변

제작진은 여러차례 바뀌어 왔지만 사회의 무관심속에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보시행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만은 한번도 퇴색된 적이 없다.

630세대 30억 지원, 방송대상 2회 수상

거쳐간 프로듀서 8명, 10일 특집방송

특히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진영화(373회)씨, 전신 45%의 화상을 입고 절망에 잠긴 서희정씨(384회), 알콜중독자인 남편 뒷바라지에 힘겨운 삶을 살다 그 충격으로 실명된 김현순(392회)씨 등의 애절한 사연이 소개되자 청취자들의 후원이 쇄도해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치료비를 마련해 주었다. 후원의 손길이 조금만 일찍 미쳤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세 살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지만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

하고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제작진에게 '평생 동안 다 갚지 못할 큰 도움을 받았다며 자신도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감동 어린 내용의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거룩한 만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에게도 후원의 손길을 보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 집'에 전문 요양원 건립기금을 보냈고(584회), 지난 8월 태풍으로 큰 수해를 입은 '강릉 자비원'(598회)을 돕기도 했다.

1회 방송에 평균 5백만원~1천만

원이 답지하는 뜨거운 성원에 힘입은 '거룩한 만남'은 그동안 총 630여 세대에 걸쳐 30여억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성금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을 위해 겨울철이던 옷과 이불, 쌀 등을 보자기에 쌓아 직접 방송국으로 찾아오는 열성 청취자 덕분에 후원품도 상당수 보시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92년과 98년 한국방송대상 2회 수상을 비롯해 93년에는 한국프로듀서상 진행자상, 2001년 '이달의 PD상' 등을 받기도 했다.

문태준 PD는 "사회의 세태가 변



◇의상에 장식된 특수조명을 통해 반딧불이의 아름다움을 발레로 표현한 김민정 발레단의 '無, 반딧불'.

詩 '승무' 창작발레로 무대서 환생

김민정 발레단, 14일 '無, 반딧불' 공연

조지훈의 대표시 '승무'가 현대식 창작 발레로 무대에 올려진다. 김민정 발레단은 14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無, 반딧불' 두 주제로 공연한다. 특히 '無'는 시 '승무'를 바탕으로 불교적 사상을 모던 발레화 시킨 작품이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박사고깔이나 하이얀 고깔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부족하지도 넘치지지도 않는 평온의 상태 즉 '무(無)' 사상이 몸짓언어로 표현된다. 남침과 부족함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만이 부

처님께 귀의하는 종교적인 승화가 이루어진다는게 주요 줄거리다.

2막에서 울려지는 '반딧불'은 종다섯 장으로 나뉘어 진다. 음악의 템포에 맞춰 반딧불 요정들이 춤을 추며, 의상에 장식된 특수 조명을 통해 어두운 밤에 출현하는 반딧불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무대에 펼쳐진다. 김민정 발레단원 10여명이 요정으로 출연하는 이 공연은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 클래식 모던발레다. 컴

無사상 몸짓언어로 표현

반딧불의 서정적 美도

김민정씨는 "조지훈님의 시에 나타난 '승무'는 인간 번뇌의 종교적인 승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에서는 고요하고 정제된 동작 음악에 맞춰 선(禪)적인 절제된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해석하는 승무의 정신 즉 '무(無)' 사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 새해 기쁨만한 강좌·전시회 ●

전통사찰 음식특강 열어 죽순이용 김밥만들기 등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 스님)는 '초중고교사 및 단체급식 담당자'를 위한 '제1기 전통사찰음식특강'을 연다.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강좌에 가면 방부제나 색소가 들어간 햄과 소시지 대신 죽순과 취나물을 이용한 김밥만들기, 냄세가 나지 않는 청국장 끓이기, 두부와 대추를 이용한 완자요리 등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두부버섯을 이용한 요리 △야채피 피부염 예방 및 치유식단 △담백하고 정갈한 김치장아찌 만들기 △청소녀의 정서 함양을 위한 꽃요리 등을 강의한다. 수강료는 교재와 재료비 포함해 20만원. (02)355-5961

기공요가·명상수련 법명사, 2월28일까지

인천 법명사는 2월 28일까지 '정신차리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공요가 및 명상수련' 강좌를 개설한다.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10여년간 기공과 요가를 수련한 태광스님이 지도한다. 시간은 오전반 11시부터, 저녁반은 19시부터다. (032)576-9741

한자교육 고전강좌 특강

전통문화연, '명심보감' 등

전통문화연구회는 3월 28일까지 한자한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전강좌' 특강을 마련한다. 교재는 <명

심보감>과 <사자소화>이며 무료다. 또 사이버서당에서는 교육한자 특강을 비롯해 논어, 맹자, 대학 등과 경전 공부, 전통문화 특강 등을 개설한다. (02)762-8401, cybersodang.co.kr

'...희망 지킴이 양' 전시회

민속박물관 4코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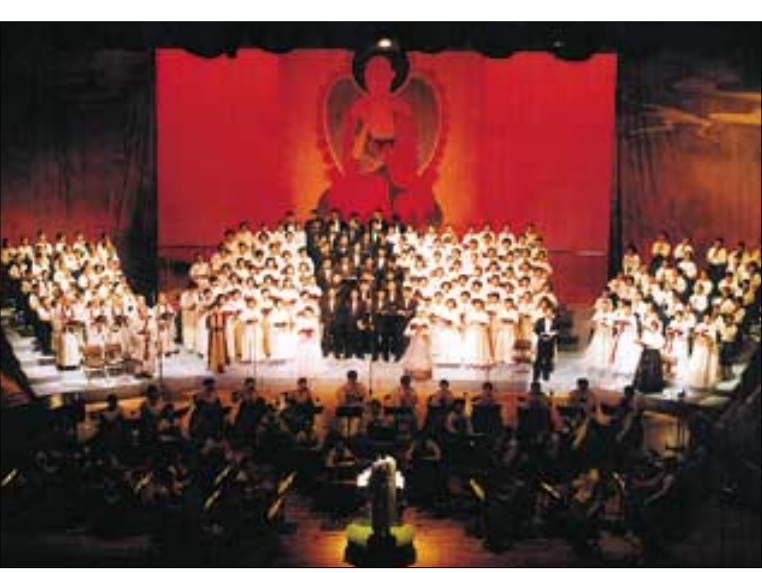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은 3관에서 '평화와 희망의 지킴이, 양(羊)' 전시회를 개최한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양이 지닌 순박하고 평화로운 상징적 의미를 풍부한 자료와 만화로 선보인다. 1부 '자료로 보는 양', 2부 '만화로 보는 양' 관련 만담이나 속담, 3부 '생활속에 깃든 양', 4부 '연하장 만들기와 사진 촬영하기' 등 총 4개의 코너가 마련된다. (02)720-3138

문화소식

**새희망 박현수씨
동국불교미술인회**



동국불교미술인회는 1일 회장에 박현수씨(사진), 부회장에 이재순씨 등 7명의 이사와 감사를 임명했다. 신임 박현수 회장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지만 동국미술인회가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순회 전시를 비롯해 10월에는 <알기쉬운 불교미술>을 보완한 증보판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 동국불교 미술인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www.donggukart.org



◇지난해 경기도 문예예술회관에서 열린 수원포교당 주최 음악회에서 연합합창단이 교성곡 '지장경, 찬불발에 피는 꽃'을 연주하고 있다.

차세대 불교음악의 젊은 주역들

성도재일 기념 작은 음악회 열어

조계종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원장 성관스님)은 9일 오후 8시부터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젊은 불자 음악인 작은 음악회'를 연다. 부처님오신날(성도재일) 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는 도림스님(수원 포교당 기획국장)의 법교로 문을 연다. 이어 불자 소리꾼 한승석씨

(국립극장 창극단원)가 비나리 축원을 덕담 형식으로 들려주며, 17년 전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젊은 불자 음악인 작은 음악회'를 연다. '동행'과 찬불가 '당신의 미소'를 합창한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주역들은 역시 젊은 불자 음악인들. 이날 공연을 위해 멀리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은 바리톤 손현승(뉴욕 메네스 음대)씨는 찬불가 '길은 갑니다'와 이태리 가곡 '그대에게 내말 전해주소'를 부른다. 또 창작 음악그룹 '푸리' 단원인 김용식씨는 피아노와 핑가리, 장고 시나위에 맞춰 '진도아리랑' 등 민요를 연주한다. 이외에도 유훈석씨(중앙대 음대 조교)가 지휘를, 함경아씨(수원포교당 반주자)는 피아노 반주를 한다.

특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에 테크노 리듬을 붙여 테크노 가수 나

'테크노 부처님' 등

다양한 장르 '눈길'

진아씨와 수원포교당 소속 대학생 6명이 함께 춤추며 부르는 '테크노 부처님'은 이번 행사의 깜짝 이벤트로 무대를 열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성관 스님은 "차세대 불교음악의 주역으로 활약할 젊은 불자 음악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부처님오신날 큰 뜻을 기려 이번 음악회를 기획했으며, 5월에 부처님오신날을 다시 기리는 뜻에서 불자 가수와 연예인 등을 초청한 산사음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031)255-2692

김주일 기자